

천년의 역사를 지닌 인쇄문화의 고장 청주

강 욱
자유기교가

서울 동남방 128km 지점.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 청주는 차령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자리 잡아 동쪽은 산줄기에 연해 있으나, 서남쪽으로는 금강 상류인 미호천을 끼고 평양지대가 드넓어 예로부터 취락이 발달하였다.

고려 태조가 “청주는 땅이 비옥하여 산물이 많으며 사람마다 호걸이라.” 했듯이 인심이 넉넉한 살기 좋은 길지로 이름이 높아왔다.

청주는 삼한시대에 마한의 땅으로 백제 시대에 이르러 상당현(낭비성 또는 낭자곡)이라 칭하고 군사적 요충지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자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5소경중의 하나인 서원경으로 승격, 지방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 후 고려 태조 23년(940년)에 청주로 지명을 개칭, 조선시대에 들어 수운이 발달한 충주가 교통의 요지로 부상함에 따라 청주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되었으나 1905년 경부선철도 개

통과 함께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1908년에는 관찰사가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되었다. 1920년 충북선개통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1946년에 청주부와 청원군이 분리되었고 1949년에 청주시로 승격되었다. 그 후 행정동 분동, 청원군 편입 등에 거쳐 1989년 7월에 2개의 출장소(동부·서부)가 설치되었고 1995년 1월에 출장소가 구(동부-상당, 서부-홍덕)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청주는 중원문화권에 속하여 문화유적들이 산재해 있고, 학문을 숭상하는 충·효·예의 고장으로 일제하에서 민족교육의 25%를 차지하는 교육도시로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1985년 청주 홍덕사가 세계 인쇄문화 태동지로 확인된 이후 시민들의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크게 고양되었고,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청주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을 인쇄한 홍덕사지가 있다. 이 금속활자의 발명은 인류 문화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인쇄술이 발명된 후 비로소 인류 문명이 확산되고 급속히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발간기록은 《불조직지심체요절》이 1377년 7월에 홍덕사에서 금속활자 인쇄 방법에 의해 간행되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것은 가장 오래 된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졌던 독일 구텐베르크의 《세계의 심판》보다 약 7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홍덕사지는 1985년 택지개발 공사 도중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 곳에서는 ‘서원부 홍덕사……’라고 새겨진 금구(禁口)조각과 ‘……황통 10년……홍덕사……’라 새겨진 청동불발 뚜껑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금당지·강당지·탑지 및 서회랑지 일부가 드러났고, 토제품인 기와·전·치미편·방추차·민무늬토기편 등과 청동 제품인 금구·소종·금강저·향로·수반 등이 출토되었다. 이 사찰은 대체로 9세기에 창건되고 15세기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홍덕사지는 발굴이 완료된 후 사적 제 315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 곳에 1987년부터 5년에 걸쳐 43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인쇄 문화 발달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고인쇄박물관을 세웠다. 그리고 경내에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금당을 복원하였다. 박물관에는 인쇄문화실과 홍덕사지 유물실이 있고, 고서 503

점, 인쇄기구 69점, 홍덕사지 출토 유물 65점 등 총 637점을 소장하고 있다.

상당구 남문로에는 국보 제41호인 용두사지 철당간이 있다. 이 당간은 두 개의 화강암 지주와 20개의 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간 밑 세 번째 단에 당기(幢記)가 양각되어 있어 고려 광종 13년(962)에 조성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에 ‘준풍(峻豊)’이라는 고려 독자의 연호를 널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알려 주는 귀중한 유물이다. 현재 전국에는 이 당간 외에 공주 갑사의 철당간, 나주 동문 밖 석당간, 담양 읍내리 석당간 등이 남아 있으나 이 철당간만이 조성 연대가 명확하다.

그러나 이 당간이 있었던 용두사의 규모 및 창건·폐사 연대는 정확하지 않다. 당간의 높이는 12.7m이고 철통은 20개가 남아 있으며 지주는 높이 4.2m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당산성은 우리나라에서 원형이 잘 남아있는 조선 중후기의 대표적인 석성으로 둘레가 4.2km, 내부면적이 727,276㎡에 이르며 전형적인 포곡식 내탁공법의 성이다.

지금의 상당산성은 임진왜란중인 선조 29년에 수축된 이후 숙종 42년에서 45년까지 충청병사 유성추의 감독으로 대대적인 성벽개축이 이루어졌고, 이듬해 성내에 구룡사와 남악사의 2개 사찰과 암문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은 성문 무사석의 기록에 남아 있다. 그 후 여러 번의 수축이 이루어져 성내의 여러 시설인 관아사, 군기고, 창고수구, 장대, 포루 등이 완성되었다. 조선왕

조실록과 비변사등록 등에 의하면 효종 2년(1651년) 충청도병마절도사영이 충남 해미에서 청주로 옮겨지고, 왜구의 침입과 내란 등으로 한성의 중간방어 지역으로 청주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가면서 상당산성의 개수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상당산성에는 동문, 서문, 남문의 3개문과 동암문·남암문의 2개 암문, 치성 3개소, 수구 3개소가 있는데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정비공사로 동·남문루와 동문이 재건되었고 1992년 말에는 동장대도 재건되었다. 또한 1995년도의 발굴조사로 서장대의 규모와 위치가 확인되었다. 동장대에서는 매년 시민의 날에 국운융성, 청주발전, 가정화평을 기원하는 삼원제를 지내고 있으며 이 곳에서 성들이 행사가 시작된다.

청주시는 앞으로 상당산성 내부를 조선영·정조시대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고 당시의 생활상을 재현할 예정이다. 또한 성의 기능과 어울리는 택견, 선무도, 경당 등 민속무예 수련관을 유치하여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성 주변에 명암 약수터와 국립청주박물관 등 볼거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청주의 관문인 진입로 가로수 터널은 경부고속도로 청주 I.C에서 가경천 죽천교까지 6km에 걸쳐 1948년에 식재된 1,527그루의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가 마치 터널을 이루듯 장관을 연출하고 있어 전국의 진입로 중 가장 아름답고 운치 있는 곳이다. 이곳은 청주의 맑고 청아한 이미지를 한껏

복돋아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지금은 잘 포장된 4차선 도로가 시원스레 뚫려 있지만 옛날에는 청주에서 조치원을 드나들던 한적한 자갈길이었다. 자동차 대신 지게를 진 농부와 소달구지가 느릿느릿 걸어가던 이 길에 플라타너스가 심어진 것은 지난 1952년 녹화사업 때의 일이다. 플라타너스 묘목을 당시 강서 면장과 동리 주민들이 나서서 길을 따라 정성껏 심었던 것이다.

이 가로수 터널도 한 때는 위기를 맞았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이 길이 청주진입로로 지정되자 가로수를 베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18년이나 된 아름드리나무들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으나 2차선의 한쪽 가로수를 중앙분리대로 삼자는 묘안으로 겨우 화를 모면했던 것이 그 것이다.

김수용 감독의 영화 <만추>와 TV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한 이곳은 잘 포장된 4차선 도로 양쪽으로 싱그럽게 어우러진 가로수 터널을 이루어 춘추동 4계절 마다 특색 있는 모습으로 청주를 찾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현재 4차선인 가로수 터널은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쌍둥이 터널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청주공업단지 내에 자리 잡은 50년 역사의 한국도자기(주)(1943년 설립)는 세계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도자기 회사로 동양에서 유일하게 정통 본차이나 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세계 최초로 초강자기 슈퍼스트롱을 개발하여 국제 품질기준

인 ISO9001을 인증받기도 했다.

‘슈퍼스트롱’은 고온에서 결정화되어 (Vitrified) 수분 흡수율이 거의 없는 특수 도자기로서 일반 도자기보다 강도가 3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전자렌지, 오븐, 식기 세척기에 넣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무늬 및 디자인을 넣은 후 유약을 처리하므로 색상이 벗겨지거나 변하지 않으며 광택 또한 뛰어나다. 젓소뼈가 50% 이상 함유되어 있어 일반 도자기에 비해 강도가 3배나 높지만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또한 젓소뼈 특유의 섬유질로 인해 보온성이 뛰어나 음식물이 쉽게 식지 않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현재 영국, 미국 등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도자기는 제품의 우수

성으로 인해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1998년에는 로마 교황청에서 사용할 기념품과 국민용 그릇을 주문받기도 했다.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 청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直指)’의 고향이며, 유서 깊은 수많은 문화유산이 시내 곳곳에서 숨을 쉬는 역사문화도시이다. 이러한 청주의 이미지는 어느 한 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선조들의 문화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생겨 난 것이다.

청주시는 ‘세계 일류도시 행복한 청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미래지향적 교육도시, 삶의 질 높은 선진복지를 근간으로 실천하고 있다.

